

# “의례 정비 통일법요집 기준에 맞춰야”

### 신규택 교수, 정토학연구 제21집서 비판 시론 실어

종교에 있어서 의례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불교에 있어서도 이 점은 중요하게 인식돼 그동안 의례를 정비했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글의례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한글통일법요집을 발간한 상태다.

신규택 연세대 교수는 정토학연구 제21집에서 ‘일요법회 의례 한글화 시론’을 통해 기존 조계종에서 만든 기존 의례집, 특히 한글의례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표준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신 교수는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래, 통일법요집 편찬이 종책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스님용과 신도용 통일법요집이 발간됐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종단이 공인한 최초의 법요집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하지만 이 통일법요집이 만들어진 지 2년 후 2000년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수정작업으로 2002년 수정본이 발간했으며, 다시 2005년 한글통일법요집 천도대비의식집과 2006년 한글통일법요집 상용의식집을 펴냈다”며 “문제는 한글통일법요집을 명시했으며 통일법요집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실상은 짜깁기 식 편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또 “2008년 다시 한글표준

법요집’을 기획했는데 여기에는 표준도, 기준본도 명확하지 않았다. 편찬위원회 구성도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1998년에 비해 떨어지고, 불교의식 한글화와 불교의식 및 음악 두 부문으로 위원을 위촉했는데, 사실상 두 부문을 넘나드는 전문가가 한두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런 상황이 한국불교계에 의해, 훈고, 시문, 역사, 운곡 등을 전체적으로

### 1998년 공인 법요집 이후 개정 거듭

### 일부 학자·스님 편중 해석 위험

### 각 파트 사안 제작후 통합 공포 제시

로 조망하고 조율하는 대가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또 “종단의 법랍이 높고 실력 있는 대가를 명실상부하게 모셔야 하는데, 이름만 빌려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작업은 일부 몇 명이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중을 속임은 물론, 불교 수준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표준법요집을 보면 채택한 자구에 대해 각주를 달고 교감하고,



1998년 통일법요집 이후 발간된 법요집. 신규택 교수(오른쪽 사진)는 개별 법요집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l.com

그 이유를 밝히지만 사실 한명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단독 저서로 출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통일법요집의 한글화 과정은 기존 통일법요집을 기반해야 하며, 종령에 의해 종단차원에서 모든 이들의 총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불교는 뿌리가 있는 전통종교이기에 의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결국 예로부터 전해오는 의례를 오늘날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한글화 과정은 먼저 종단에서 공인된 1998년 발간된 통일법요집을 기준으로 삼

고, 공신력있는 절차를 통해 종단 법령으로 제정공표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끝으로 “1998년 이후 12년 간 세차례의 시도는 결국 실효성 없는 실험에 불과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기에 포교원장이 바뀌 때마다 새로운 법요집이 나오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여러 의례를 종합적으로 담은 의례집을 만들기 보다는 각 파트별 사안용을 만들어 협력한 후 그 경험으로 종단법령 의례집을 제정 공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l.com

## 경주 남산 창림사지, 금당지와 회랑지 확인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 계림문화재 연구원(원장 남시진)은 경주 남산 일원에서 신라 창림사지로 추정되는 금당지와 회랑지, 종각지 등 유구를 확인했다. 신라 창림사지는 상, 중, 하 3권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1차 발굴조사는 중 권역에서 진행됐다.



천(天)·귀목문(鬼目文) 와당(瓦當)과 명문기(銘文) 등이 출토됐다. 이는 8세기부터 14세기까지 창림사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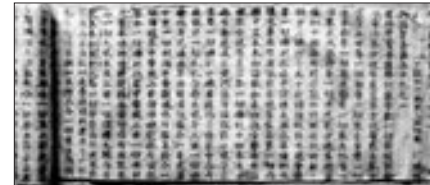
이 권역에서는 금당지와 회랑지, 쌍귀부의 비각지, 종각지, 축대, 담장 등의 유구들이 세 차례 이상 중복돼 발견됐다. 또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로 편년되는 연화문·보상화문(寶相華文)·비천문(飛

## 불교문화재 지역 문화재로도 대거 지정

### 인천 흥륜사 법화경 등 3건·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가 지역 문화재로 지정됐다.

인천 흥륜사(주지 법륜)가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권3’, ‘몽상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 ‘대방광불화엄경 주본(周本)’ 등 3점은 7월 22일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을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인천 흥륜사 법화경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68호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1은 1244년에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재조본 고려대장경 판본이다. 이외에도 안성 봉덕사 대웅전 목조여래좌상은 7월 28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90호로 지정됐다.

봉덕사 목조여래좌상은 1666년(현종 7년) 수화승 금문과 법림 등이 제작한 불상으로 조성발원문과 묘법연화경과 다라니경 수심점이 복장물로 수습됐다. 인천 1497년 8월 판본은 보물 제1737호다.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67호인 ‘몽상화상육도보설’은 1539년(중종34) 안동 광흥사에서 개판된 판본이다. 이보다 40년 앞선 1497년 8월 판본은 보물 제1737호다.

노덕현 기자

## “임란 후 불교, 사회 위상 높았다”

### 고영섭 교수, 한국불교사연구소 세미나에서 주장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극복의 주역으로 나선 불교계는 당대 사상에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했으며, 사회적 위상도 높았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사진)는 남양주 봉인사와 한국불교연구소가 7월 27일 공동으로 개최한 ‘임란 호란 전후의 사회상과 불교상’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교수에 따르면 불교는 17세기 후반 양란을 거치며 역불승유 정책에 배척되지만 한 것이 아니라 유학자들과의 상호소통으로 주요 사상으로 떠올랐다.

고 교수는 “조선 후기에는 선법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비문으로 비석을 건립하고, 행장 기술과 문집 간행이 발달하는 등 불교계에 변화가 진행되는데 이는 불교가 구성점을 세우고 대중화를 시도했던 반증”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특히 유학자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고승비문 중 유자들이 쓴 것이 40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임진왜란 이전에는 고승 비문 건립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국가 영역이었지만 전쟁 후 불교계가 이를 맡으며 활발히 진행됐다.

고 교수는 “표훈사 백화암 청허당 휴정대사 비문’의 시주자 452명이 모두 유자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고 교수는 “특히 사명대사의 비석 건립에는 유자들이 시주자로 대거 참여했는데 이는 불교가 사회적 위상이 높았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 불광연구원 <전법학연구> 제6호 발간

### 윤리교과서 불교서술 체제 등 논문 10편 수록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최근 <전법학연구> 제6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중국불교의 전법론과 전법정신’ 주제 논문 5편과 ‘초종교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체제와 내용’을 다룬 논문 4편, 미술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서술 체제와 내용 등 총 10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중국불교 전법정신과 전법론’ 파트에서는 △최은영 금강대 HK교수(금강대의 ‘역경과 찬술을 통한 중국불교의 전법’ △석길암 금강대 HK교수의 ‘변문을 통해 본 중국불교의 대중 전법’ △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의 ‘중국 종파불교에 나타난 전법관’ △김성순 금강대 HK연구교수의 ‘중국 민간불교경사와 표교사들’이 담겼다.

‘초종교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서술 체제와 내용’에는 △이철주 대전 중원초교사의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제와 내용’ △신희정 경남 진영중교사의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제



안 모색'이 수록됐다.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전법이란 단지 교세를 확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여 중생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견착을 씻어내는 것”이라며 “세상을 맑고 투명하게 바꾸고, 모든 생명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어가는 실천이 바로 전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홍익대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강좌

홍익대 문화예술평생교육원(원장 이한순)은 2014년도 2학기 과목으로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을 개설한다.

강의는 9월 4일부터 홍익대 대학로캠퍼스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주 동안 진행된다. 강사로는 불교미술전문가로 명상을 가르치며 대중과 만

나는 심영신 경기도박물관 학예사가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성보와 조형물을 일주문 요사채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고 어떤 이치로 배치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참가 신청은 평생교육원(hica, hongik.ac.kr)으로 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 동아시아불교문화 17집 원고 모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9월 발간 예정인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9집의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마감은 8월 15일까지로 이메일(eastbuddha@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과 투고요령, 논문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easternasia.kr)에서 참조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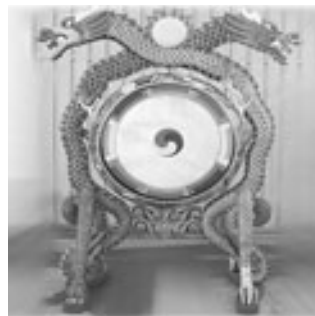
된다. 심사료는 3만원으로 학회지 게재시 연구비로 전입 30만원, 비전입 20만원, 일반논문 전입 10만원, 비전입 5만원이 지급된다.

논문 분량은 학회지 편집기준 25쪽 내외로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051)581-6320

노덕현 기자

# 양지국악사

###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